

“용성·한암 사상, 대중화 방안 고민해야”

김광식 교수, 4월 24일 ‘용성·한암, 지성의 원류’ 학술세미나서

월정사·대각사상연구 공동 개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 동시 조명

평창 월정사(주지 정병)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이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용성과 한암, 그 지성의 원류를 찾아서’는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의 비교와 함께 연구과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 발표에서 수행, 교육, 역경 및 출판, 종단 및 사회, 계승 등으로 나눠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먼저 수행에 있어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동질성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수행과정은 달랐지만 참선, 경학, 계율을 균형적으로 이수했으며 이를 강조했다”며 “그러면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염불에 대한 우호성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출재가의 동시교육을 고려했다면 한암 스님은 출가자 중심의 교육을 중시했다. 김 교수는 “한암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상은 대부분 스님들, 특히 수좌 스님들이었다”며 “한암 스님이 구현한 승가조직은 특별한 지도 방식으로 이 또한 승려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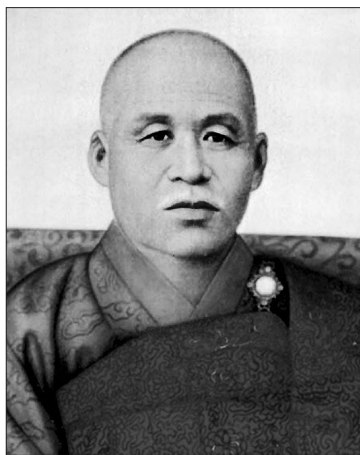
이러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의 이질성은 사회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은 임제종운동, 3·1운동 등 민족운동을 수행했다. 각처 선원에서 조실을 역임했지만 종단을 떠나 독자노선을 걸었다. 용성은 현장 실천형의 지성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암 스님은 세속, 삼독, 명리 등과 거리를 두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식도 굳이 피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의 도덕성과 깨달음의 일상성을 강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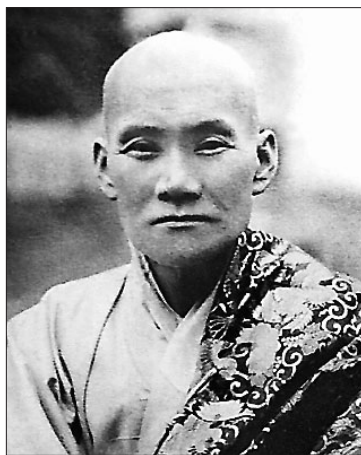
김 교수는 “하지만 용성 스님이 선교의 균형적 성격이었다면 한암 스님은 선 중심적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용성

끝으로 김 교수는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 연구에 있어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의 문도들은 조계종단 내에서도 큰 문종으로 자리했지만 문제는 행적, 고뇌, 지성, 사상 등을 어떻게 정리하여 그를



용성 스님



한암 스님

일반 대중에게 전해줄 것인가”고 말했다. 이어 “한암 스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제자인 탄허 스님의 학술적 업적이 더욱 조명받고 있다. 한암 스님 연구는 연고사찰인 수덕사와 통도사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 한암사상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지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표를 진행한 이상화 고려대 교수는 “한암 스님의 선 사상은 선의 절대적인 우위만을 주장하는 오늘날 한국 선객들의 수행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암 스님의 개오와 보임의 과정을 보면 한

암 스님은 ‘자성이 본래 비어 있어 두두물물 자기아님없음을 확인하면 수행할 필요 없이 수행하는 무위행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며 “한암 스님의 돈오점수는 오늘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법으로 재조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능인불교대자현 스님의 ‘계잡(戒罽)’의 분석을 통한 한암의 선계(禪戒) 일치적 관점 △백도수 능인불교대 교수의 ‘한암의 계율 인식 고찰’ △마성 스님의 ‘용성의 선농일치 사상’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홍천사 비로자나삼신도 등 서울시 문화재로

서울시는 4월 23일 홍천사 비로자나삼신도, 육조대사법보단경(연해) 권 상을 비롯해 ‘조선시대 육아일기’로 불리는 양아록(養兒錄)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홍천사 비로자나삼신도.

홍천사 비로자나삼신도(화담선선 등 17명의 화승이 1832년(순조 32)에 제작한 불화다. 이 불화는 순조와 순조비, 효명세자의 부인인 조대비, 효명세자의 아들인 세손(후에 현종) 등을 축원하기 위해 정조의 딸인 숙선공주와 순조의 장인 김조순, 명은·복은·덕은 공주 등 종친이 대거 시주에 참여해 제작한 것이다. 왕실발원 불화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다. 이 언해본은 성종이 승하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와 인수대비가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낸 이듬해인 1496년 한글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것이다.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냈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양아록은 목재 이문건(李文健)이 1551년(명종 6)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16년간의 손자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희귀한 자료다. 시는 양아록에서 조선 중기 양반 집안의 아동 교육과 생활 풍속을 이해할 수 있어 생활·민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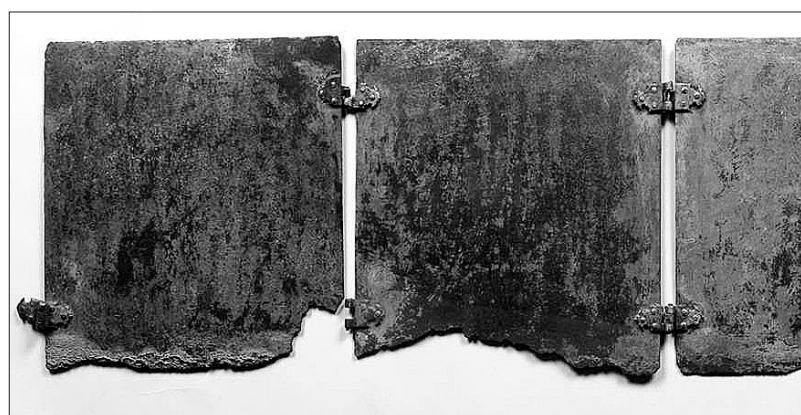
‘불교지성의 전통과 현대적 모색’ 학술대회

반아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조계종 고시위원장은) 5월 3일 오후 1시 ‘불교지성의 전통과 현대적 모색’을 주제로 통도사 반야암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와 부산교수불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재현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스원오

민 경성대 교수의 ‘불교지성의 전통과 역사’ △안경식 부산대 교수의 ‘신라 교승들의 세상과의 소통’ △김영진 동국대 교수 ‘근대 중국의 불교지성과 무(無)의 정치학’ △능인불교대학원대 명법 스님의 ‘불교지성의 시대적 과제와 현대적 모색’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의 사회는 윤종갑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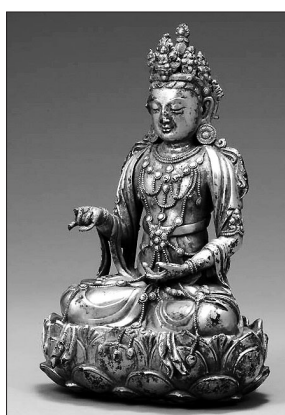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동제염거화상탑지.



전 화양 금동관음보살좌상.



매곡동 청동불감.

‘황룡사 금동찰주본기’ 등 성보 대거 보물로

문화재청 4월 22일 12건 지정...불교사 연구의 기준자료

성보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2일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를 비롯한 문화재 12건을 보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870호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에 왕의 명에 의해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다. 구층목탑의 건립과정과 중수 과정을 후대의 역사가가 아닌 중수 당시에 제작된 유물을 통해 생생히 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유행했던 탑지(塔誌)의 서술체계는 물론 서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사리장치 품목과 안지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탑파의 사리장엄 의식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리함의 문비(門扉, 문짝) 내외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절대연대(872년)를 가진 유품으로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보물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銅製廉巨和尚塔誌)’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염거화상(?~844년)이 844년에 천화(轉化, 고승의 죽음)한 내용을 해서체로 전각한 탑지이다.

염거화상은 진전사(陳田寺) 원적산사(元寂禪師) 도의(道義)의 제자로, 가지산문의 2대 조(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판에 새겨진 탑지의 내용은 소략하나, 9세기에 유행한 쌍구체(雙鉤體) 전각법이 도입된 앞선 예로서 당시의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끝 자국은 금속공예 기술의 우월함을 잘 대변해 준다.

보물 제1872호 ‘전 화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은 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고 화려한 보관, 커다란 원만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잘록한

허리 등 중국 원대에 황실을 중심으로 성행 하였던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물 제1873호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음옥평) 들판에 방치되어 있던 다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다.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이와 함께 보물 제1874호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877호 ‘봉화 태자사 남궁대사탑비’, 보물 제1518-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廣圓覺修多羅了義經)’, 보물 제921-3호 ‘진실주집(眞實珠集)’ 등이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제18집 논문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말 발간 예정인 학술지 <선문화연구> 제 18집 원고를 5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원고모집분야는 불교학·불교사학·불교문화 및 불교복지 등의 응용불교학으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의 분량이다. 접수 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연구원 이메일 또는 연구원 이메일(seonhak

won@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원고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seonli)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된 논문은 편집 해당전공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도성 출입금지 해제’ 교육아사리 포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 제2차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관 스님(불교사 분야)이 ‘승려 도성 출입금지 해제 연구’, △소인 스님(참여불교 분야)이 ‘이상적 승가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각각 범

상 스님(대승불교 분야)과 원법 스님(한문 불전 분야)이 맡는다.

특히 교육아사리 진관 스님은 1895년 스님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되기 전후로 시대상황과 불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전법과정 등을 통해 현대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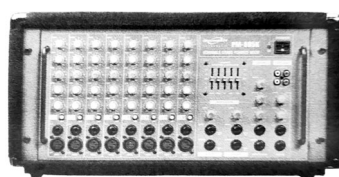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조체 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개
· CD기 1대

◇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